

KIPI NEWS

한국특허정보원, 정기 이사회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날 상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격적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윤우 이사장은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발굴, ▲ 양적·질적 내실을 통한 성장 도모, ▲ 글로벌 시대를 향한 세계 초일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치하하고, “조직의 생존방식은 혁신의 연속임을 명심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올해에도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한국특허정보원 6층 회의실에서 제 15회 한국특허정보원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윤우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 및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 2005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정관 개정(안) ▲ 직제규정 개정(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중 3호 안건인 정관 개정(안)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상정하였으며, 제4호 안건인 직제규정 개정(안)은 한국특허정보원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직제개편이 주 내용으로 상정됐다.

이날 이사회는 이들 4개 안건을 모두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의 조직은 2본부 13개 팀에서 2본부 12개 팀 1사무소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직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 사무소의 신설, KIPRIS사업팀과 전산개발운영팀의 통합, 총무팀을 경영지원팀으로, 상표조사분석팀을 상표사업팀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사업본부 내 전산개발운영팀을 관리본부 내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조사·분석 업무협약 잇달아 체결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1월 20일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林陸基, www.utp.or.kr) 및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단장 林陸基)과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각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UTP)는 울산광역시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울산산업단지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보강한 생산성 혁명의 혁신기반으로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협의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지원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산업 및 업체의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특허정보 활용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각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월 15일에는 한양대학교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실(실장 공성호 : research.hanyang.ac.kr)은 이날 한양대학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 대학권에서도 특허정보 활용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내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특허정보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특허정보원 방문



지난 2월 17일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 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및 공업소유권정보연구수관(NCIPI ;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JETRO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의 관계자 6명이 한국특허정보원을 방문했다.

JAPIO 고바야시 아키라(Kobayashi Akira) 사업관리실장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는 이날 한국특허정보원의 소개를 받고 양국의 특허정보 보급현황 및 양국의 업무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세계적인 특허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만큼, 양국 간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귀 기관과의 협력이 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